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 내수보완에 17.7조 투입”

문 대통령, 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서…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앞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우선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4차 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활력을 위한 방안, 내수를 부양하는 방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원을 지원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도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경기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지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세계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전북선관위, 도내 243곳서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도내 243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

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하며,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고(붙임 1 참조), 선거인이 사용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 찾은 녹색당 “이번 총선, 기후위기 선거 돼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주 앞두고 녹색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전북을 찾아 21대 총선을 기후위기 선거로 규정, 전북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간대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나 호주 산불은 우리가 이미 기후위기 시대의 한 가운데 들어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기후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 비례대표 기호 3번 성지수 후보는 “이번 위기 속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인데 전북의 국회의원 후보 중에는 고민과 대책을 말하는 분이 없는 듯하다”며 “너도나도 내놓는 ‘토건 공약’이 전북 청년의 일상과 기후위기를 막을 수는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



한 주가 ▲사회가 책임지는 돌봄과 의료 ▲기본소득을 통한 전환 사회의 전망 확보 ▲회복력을 갖춘 도시, 적게 이용하는 일상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김윤덕 ‘전주-완주 통합 찬성’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 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8일 한 방송사에서 주관한 라디오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연락을 해오고 있다”면서 “하나로 마음을 모아준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고 전주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했다.

다만, 통합의 방법에 관해서는 “통합의 시한을 정해 다시 추진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민간의 신뢰를 통한 통합추진을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윤준병, 한예총 회장과 예술 협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정읍·고창)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범현, 이하 한예총)로부터 ‘국민 문화예술 후보’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다.

정읍시 연지동 윤준병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직접 인증서를 건넨 이범현 회장은 “윤준병 후보가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넨 인증서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었고, 문화예술 창작 지원과 국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기에 윤 후보를 ‘국민 문화예술 후보’로 선정하고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윤희 윤준병 후보와 이범현 회장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협약을 했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민주더시민, 남원서 공약 발표’

민주당 전북도당은 선대위 전체회의와 더불어시민당 전북도 공약발표회를 9일 오전 10시 남원에서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당은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전북을 만들 것과 남원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을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키는 의지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래·안호영 전북지역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윤덕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윤지홍·신대용·정성균 공동선거대책부위원장, 이한기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김경수 대변인 등이 참석하고, 시민당에서는 우희종·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양경숙·김상민 등 전북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한다. /특별취재반



서남대 전직 교수 22인 ‘이용호 지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선거대책본부는 8일 서남대학교 전직 교수 22인이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용호후보에게 공공의대 설립의 중책을 맡기 고자 한다”며, “서남대학교와 공공의대는 서로 무관하지 않다. 공공의대의 설립과 비리사회의 청산문제를 투명하게 마무리 할 책임자로 공공의대의 최초 제안부터 입법과정을 주도했던 이용호 후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서남대 교수들의 공공의대 설립을 믿고 맡겨주어 감사하고 크게 힘이 난다며 민심만 믿고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안호영 ‘완진무장 주민 교통이동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완진무장 주민의 편리한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관광 유치, 버스의 공공적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재선시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 안 후보는 지역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운송수익금을 넘어선 만큼, 진안·무주·장수군에서의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전환에 따른 득실을 논의하기 위한 ‘무진장 농촌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칭) 구성을 공언했다.

그는 또한 무주 태권도원을 경유하는 공항버스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부안쌀

국가브랜드대상 6년연속 수상(2013~2018)
지리적표시제 증명표장 제1호 등록(특허청)

천년의솨씨

구입문의
부안군청 ☎ 063)580-4812